

万葉集의 음차자 農(Ⅱ)

-중고음과 당대북방음을 중심으로-

김대성*

(e-mail: hanbyeol@chonnam.ac.kr)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冬운의 재구음 검토 |
| 2. 冬운의 자료 분석 | 4. 冬운의 변천 |
| 2.1 베트남과 티베트 한자음 | 5. 萬葉假名 ‘農’ |
| 2.2 현대중국방언음 | 6. 冬운과 東운의 합류 시기와 |
| 2.3 한국전승한자음과 만요우가나
(万葉仮名) | 冬운의 재구음 |
-

1. 들어가는 말

지난 연구(김대성 2010:萬葉集의 음차자 農 (Ⅰ) -馬淵和夫설을 중심으로-)에서는 음차자 農에 대한 馬淵和夫설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논한 바 있다. 첫째 그의 자료 분석의 오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시하였고, 둘째 山上憶良(야마노우에노 오키라1)가 ㄹ과 ㄴ갑류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중고음에 ㄴ갑류와 일치하는 자가 없어 의도적으로 ‘ㄴ갑류=훈독한자 : ㄹ=奴農’과 같이 구별 표기하였거나, ㄴ갑류의 예가 1회 밖에 없어 음차 표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추정하였고, 셋째 山上憶良의 ㄴ갑류와 ㄹ의 혼용을 그가 중국의 한민족집단이기 때문으로 보는 데 대하여 山上憶良은 백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국인의 표기 문화와 배치된다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農자는 왜 山上憶良의 노래에 집중되어 있는지와 冬운의 다

* 전남대학교 교수, 상대일본어학

1) 일본어 우리말 적기는 필자의 표기법을 따르기로 한다. 김대성(2003:106-107) 참고.

른 자가 才列갑류로 쓰이는데 왜 ㄹ 즉 ㄱ列의 음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冬운의 중고음의 재구와 재검토를 통하여 당대북방음의 東운과 冬운의 합류 시기를 보다 더 특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기의 冬운의 재구음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지난 연구의 선행연구를 정리하기로 한다.²⁾ 일본의 연구로는 우선 주석서에서의 언급을 들 수 있다. 土屋文明(1949-1956)은 農이 ㄱ갑류가 아닌 ㄹ로 해독하였는데 農이 3-361³⁾을 제외하면 山上憶良의 노래에만 보인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으며 農이 ㄹ로 쓰인 음운론적인 설명도 없다. 高木市之助의(1957-1962)에서는 奴·努·弩 등은 당시 중국음에서 [no]를 나타내는 문자이며 중국음에서는 그 당시에 [nu]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자가 없으며, 상고음의 nōng[non]이 중고음에서는 nung[nun]으로 변하여 農이 ㄹ의 표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澤瀉久孝(1957-1968, 1990)는 802번의 農의 ㄹ표기를 山上憶良의 고어 사용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왜 農이 ㄹ표기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점은 小島憲之의(1994-1996)도 같은 입장이다. 伊藤博(1996)는 3-361의 佐農能岡에 대하여 ‘サノノオカ’로 읽고 있으면서도 ‘サノノオカ’ 즉 ‘サノ’의 표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그 또한 음운론적인 설명은 없다.

주석서 이외에는 稻岡耕二(1986)와 森博達(1991)의 연구가 비교적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農자를 山上憶良가 사용한 표기자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 중의 하나로 보아, 권5의 가요 전체의 작자 내지는 필자를 추정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山上憶良가 農자를 왜 ㄹ의 표기자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아마도 이점은 그가 표기자의 사용빈도와 표기자의 종류에 대한 관심에만 머물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후자의 경우, 平山久雄의 중고 재구음인 東운[-ōuŋ] : 冬운[-on]이 慧琳의 『一切經音義』(783년-810년; 줄여서 『慧琳音義』)에서는 합류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日本書紀에서 ㄹ의 표기에 農이 많이 사용된 것은 日本書紀가 편찬된 시기에 이미 합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용한 중고 재구음은 타당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필자는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2) 국내 연구로는 간접적인 연구는 있으나 직접적인 연구는 없다. 간접적인 연구라고 하는 개념은 일본 고대자료가 배제된 채 한국과 중국자료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연구일 뿐이라는 뜻이다.

3) 3-361은 권3 361번 노래를 나타낸다. 이하 같다.

2. 冬운의 자료 분석

2.1 베트남과 티베트 한자음

먼저 제2차 자료인 베트남과 티베트 한자음을 살펴 보기로 한다.⁴⁾ 冬운의 베트남 한자음(三根谷徹 1993:405-406)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幫p⁵]bộc 瀑 [竝b]bộc 僕
 [端t]đông 冬荳/đốc 篤督 [透t⁵]thông 焯/thống 統 [定d]đồng 彤疼/độc 毒毒
 [泥n]nông 農農儂農/nung 儂農
 [精ts]tông 宗/tống 綜 tộng 綜 [從dz]tôn 棕琮 [心s]tung 鬆/tống 宋 tong 宋
 [見k]công 攻鉦/cốc 桔齧告 [溪k⁵]khốc 酷轡
 [曉h]hốc 焯 hộc 隴 [匣h]hộc 鵠 [影·]ốc 鸞添沃

綜과 같이 같은 자에 제5성(tống; thanh sắc)과 제6성(tộng; thanh nặng)으로 성조가 다른 경우와, 宋과 같이 tống과 tong로 두 가지 음이 있는 경우도 각각 다른 자로 처리하면, 冬운은 39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5자(89.7%)가 ông[on̄m]으로 반영되었다. 나머지는 儂農(nung[nūnm])·鬆(tung[tūnm])와 같이 [nūnm]이 3예, 그리고 宋(tong[ton̄m])이 1예 보인다. [nūnm]의 반영 예는 후술한 바와 같이 당대북방음일 가능성이 높고, [ton̄m]은 절운 이전음의 잔재로 추정된다.

티베트 한자음(羅常培 1933:57)의 경우

冬合一[uoŋ]
 <平> 農noñ 宗tsoñ (千字文)
 <平> 宗tsoñ ts'oñ (大乘中宗見解)

와 같이 두 자에 불과한데 on̄[on̄]으로 반영되었다. 이 두 자는 만요우가나(万葉仮名)의 예와 동일한 자로 만요우가나 또한 이 두 자에 불과하다.

2.2 현대중국방언음

현대중국방언음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⁶⁾

4) 제2차 자료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김대성(2012) 참고.
 5) 성모의 재구음은 藤堂明保(토우도우 아키야스 1980)에 의한다.
 6) 성조는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沃	冬	統	农	脓	宗	综	松	宋	督	毒	酷
北京	uo	tuŋ	t'uŋ	nuŋ	nuŋ n ə ŋ 口	tsuŋ	tsuŋ tsəŋ	suŋ	suŋ	tu	tu	k'u
济南	uɿ	tuŋ	t'uŋ	nuŋ nu口	nuŋ	tsuŋ	tsuŋ	suŋ	suŋ	tu	tu	k'u
西安	uo文 u白	tuoŋ	t'u o ŋ	luoŋ	nuoŋ	tsuo ŋ	tsuo ŋ tsuo ŋ	suoŋ	suoŋ	tu	tu	k'u
太原	vəʔ	tuŋ	t'uŋ	nəŋ	nəŋ	tsuŋ	tsuŋ tsuŋ	suŋ	suŋ	tuəʔ	tuəʔ	k'uəʔ
武汉	ŋo	toŋ	t'oŋ	noŋ	noŋ	tsoŋ	tsoŋ tsoŋ	soŋ	soŋ	tou	tou	k'u
成都	o	toŋ	t'oŋ	noŋ	noŋ	tsoŋ	tsoŋ tsoŋ	soŋ	soŋ	tu	tu	k'u
合肥	ueʔ	təŋ	t'əŋ	ləŋ	ləŋ	tsəŋ	tsəŋ	səŋ	səŋ	tuəʔ	tuəʔ	k'uəʔ
扬州	ɔʔ	toŋ	t'oŋ	loŋ	loŋ	tsoŋ	tsoŋ	soŋ	soŋ	tɔʔ	tɔʔ	k'ɔʔ
苏州	oʔ o新	toŋ	t'oŋ	noŋ	noŋ	tsoŋ	tsoŋ	soŋ	soŋ	toʔ	doʔ	k'oʔ
温州	o o	toŋ	t'oŋ	noŋ	noŋ	tsoŋ	tsoŋ	soŋ	soŋ	təu	dəu 文 dəu 白	k'u
长沙	o	tən	t'en	lən	lən	tsən	tsən tsən	sən	sən	təu	təu	k'u
双峰	əu	tan	t'an	lan	lan	tsan	tsan	san	san	təu təu	t'əu	kəu k'əu
南昌	uək	tuŋ	t'uŋ	luŋ	luŋ	tsuŋ	tsuŋ	suŋ	suŋ	tuk	t'uk	k'uk
梅县	vək	tuŋ	t'uŋ	nuŋ	nuŋ	tsuŋ	tsi u ŋ	suŋ	suŋ	tuk	t'uk 文 t'ɛu 白	k'uk
广州	ɟək	tɔŋ	t'ɔŋ	nɔŋ	nɔŋ	tɟɔŋ	tɟɔŋ	ɟɔŋ	ɟɔŋ	tək	tək	hək
阳江	ɟək	tɔŋ	t'ɔŋ	nɔŋ	nɔŋ	tɟɔŋ	tɟɔŋ	ɬɔŋ	ɬɔŋ	tək	tək 文 to u 白	hək
厦门	ək文 ak白	tɔ ŋ 文 t a ŋ 白	t'ɔ ŋ 文 t' a ŋ 白	lɔ ŋ 文 l a ŋ 白	lɔ ŋ 文 l a ŋ 白	tsɔŋ	tsɔŋ 文 tsaŋ 白	sɔ ŋ 文 s a ŋ 白	sɔ ŋ 文 s a ŋ 白	tək	tək 文 t a k 白	k'ək
潮州	ək文 ak白	taŋ	t'oŋ	l o ŋ 文	l o ŋ 文	tsoŋ	tsoŋ	s o ŋ 文	soŋ	tok	tak	k'ok

				naŋ 白	laŋ 白			saŋ 白				
福州	au?	tuŋ		nuŋ	nuŋ			suŋ	souŋ		tu?	
	文 uɔ?	文 tøyŋ	t'uw	文 nøy	文 nøy	tsuŋ	tsuŋ	文 søyŋ	文 sæy	tou?	文 tøy?	kou?
	白	白		白	白			白	白		白	
建甌	ɔ文	tɔŋ	t'ɔŋ	nɔŋ	nɔŋ	tsɔŋ	tsɔŋ	sɔŋ	sɔŋ	tu	tu文	k'u
	u白										t'e白	

影모자인 沃은 성모의 반영으로 보이는 [u], [v], [j] 그리고 [a]를 제외하면 운미음이 탈락했거나 [ʔ][k][u]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인 핵모음의 반영을 보면, [o][ɣ][ə][ɐ][ɔ][ɔ][u]와 같은데 주로 [o]와 [ɔ]로 반영된 사실을 볼 수 있다. 沃을 포함한 입성자를 제외하면, 운모는 [uŋ][uoŋ][oŋ][əŋ(ən)][aŋ(an)][ɔŋ][ɔŋ]과 같이 나타나는데 주로 [uŋ]과 [oŋ]임을 알 수 있다.⁷⁾ 沃을 제외한 입성자의 경우는 [u][uə][ou][ɔ][o][əu][ɔ][a]와 같은데 입성이 탈락되고 핵모음만 남은 [u]의 반영이 가장 많다.

이상과 같이 冬운의 중국현대방언음은 핵모음이 [u]와 [o] 또는 그 사이의 음으로 반영되었는데, 이와 같은 반영은 東운과 거의 일치하여 한마디로 중당(中唐) 이후의 합운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2.3 한국전승한자음과 만요우가나(万葉假名)

한국전승한자음⁸⁾(『훈몽자회(1527년)』·『천자문(1575년)』·『신증유합(1576년)』)은

7)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普通话(普通話, 즉 北京語)의 경우 [uŋ]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임동석역(1993:163)에 의하면,

[uŋ]·[yŋ]에서의 [u]는, 그 음가가 <후고원순원음 後高圓唇元音> (u)와 <후반고원순원음 後半高圓唇元音> (o)의 중간쯤이다.

와 같이 핵모음을 [u]로 볼 수 없다. IPA의 [u]는

u [u] 例子:乌, 都, 苏, 图书, 鼓舞

u [u] 的舌位高而后, 同时圆唇, 是普通话里圆唇程度最高的元音, 和国际音标中定位元音 [u] 的舌位和唇形是一致的。(林焘·王理嘉 1992:47)

와 같이 단모음(单元音)으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음이며, [uŋ]의 경우는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u]와 [o] 사이의 음이다. 그런데 그 사이음은 [u]에 가까운 [u]와 [o]에 가까운 [ɔ]가 있는데 [uŋ]은 후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은 현대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東方’이나 ‘廣東語’를 각각 ‘똥팡’, ‘칸톤고’가 아니라 ‘똥팡’, ‘칸톤고’와 같이 각각 [o]로 받아들인 점에 의해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北京語의 경우는 广州나 阳州와 같이 [ɔŋ]의 반영으로 보고자 한다.

8) 한국전승한자음은 필자의 연구(김·데존 2000)에 의해 중고음 시기의 화석화된 음임을 밝힌 바가 있다.

다음과 같이 한 자의 예외도 없이

[見k]楷곡

[影·沃]沃添옥 [匣h]鵠곡

[端t]冬동 [透t']統통 [定d]彤疼동/磻轟독 [泥n]農膿(똥)농

[精ts]宗綜중

모두 /옹/ /옥/으로 반영되었다. 이 사실은 비록 절운음에서 冬운과 東운이 분운되었다가 당대북방음에서는 합운이 일어나 그 음가가 [uŋ]나 [uŋ]⁹⁾ 또는 [ōŋ]과 같은 음이 되었다고 하여도, 고대국어의 모음체계¹⁰⁾에서는 /오/가 [o]~[u] 모두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핵모음이 [u]나 [u]라 하더라도 /우/가 아니라 /오/로 반영되었으므로 한국전승한자음에 의해서는 冬운의 중국음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만요우가나의 경우 冬운은 農과 宗 두 자만이 보이는데, 후술한 바와 같이 農은 ㄹ로, 宗은 ‘이(磯)’와 ‘스(裾)’ 그리고 인명 ‘소가’와 같이 모두 ㅅ갑류(甲類)의 표기로 사용되었다.

3. 冬운의 재구음 검토

冬운에 대한 중고 재구음을 주요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모의 경우 農은 운경(韻鏡) 내전제2(內轉第二) 通섭 冬운 평성 1등 차탁(또는 청탁) 자이므로 [n]으로 추정되는 점은 이견이 없다. 운모의 경우 ‘Karlgren[uoŋ]·Pulleyblank[awŋ]·陸志韋[wɔŋ]·董同龢[uoŋ]·王力[uŋ]·藤堂明保[oŋ]·河野六郎[oŋ]’ 등으로 재구되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uoŋ]·[əwŋ]·[wɔŋ]·[uŋ]·[oŋ]과 같은데 합구개음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 핵모음(vowel 元音)을 이중모음으로 추정한 학자와 단모음으로 추정한 학자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재구음을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Bernhard Karlgren(버나드 칼그렌 1963:259-261)은 한국한자음(Sino-Korean)·일본한음(Kan-on)·베트남한자음(Sino-Annamese)에 의해 핵모음을 [o]로, 그리고 운도(Sound Tables)에서 합구(ho k'ou)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합구개음[u]가 있는 것으로 재구하였다.¹¹⁾

9) IPA에서는 후설원순고모음과 후설원순중모음 사이음을 [u]로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o]에 가까운 음을 [ɔ]로, [u]에 가까운 음을 [u]로 구분 표기한다.

10) 필자가 추정하는 고대국어의 모음체계는 /이/= [i], /우/= [ɰ], /오/= [u~ɔ], /어/= [ɛ], /오/= [u], /으/= [ɰ], /아/= [a]와 같다.

11) Karlgren(1963:261)은 “It is then easily conceivable that the foreign borrowers, who, as have

陸志韋(루즈웨이 1985:54-55)는 Karlgren이 한국한자음(高麗音)·일본한음(日本漢音), 그리고 현대중국방언 永嘉話(용지아어)를 토대로 한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재구음은 3등 개구개음을 제외하면 鍾운([Iwoŋ])과 똑같이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한 근거는 Karlgren의 근거 이외에 현대중국방언에서 東운 1등과 冬운1등의 구별이 없는 점과, 陸法言(루화옌)의 절운(切韻)에서는 冬운과 鍾운이 혼란 양상을 보이는데 당사본(唐寫本)과 오대간본(五代刊本)은 陸法言을 그대로 따랐으나, 광운(廣韻)에서는 冬운과 鍾운을 분운하였다는 점을 들었고, 절운(陸法言)에서 혼란이 되었는데도 冬鍾운을 같은 운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방언에서는 핵모음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東운과 冬운이 오랫동안 분운되었기 때문에 방언에서 冬鍾의 핵모음은 [u]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²⁾ 즉 冬운과 鍾운을 같은 운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세한국 전승한자음과 만요우가나의 반영 예의 경우 같은 음으로 반영되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베트남과 티베트한자음은 서로 다른 음으로 반영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冬운과 鍾운은 서로 다른 운으로 추정된다. 董同龢(똥통후아 1993:165)는 일본한자음·한국한자음과 후우저우(福州)와 원저우(溫州)의 방언음에서 東3등과 鍾3등이 서로 다르게 반영되었는데, 東3등의 경우 [u]로 나타나므로 冬운은 鍾운과 함께 핵모음을 [o]로 추정하였다. 특히 그는 鍾운이 음운변천(演變)과정에서 虞운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虞운이 합구이므로 鍾운도 합구음이며 1등인 冬운도 합구음 [uoŋ]이라고 주장하였다.¹³⁾

E.G.Pulleyblank(에드윈 풀리블랭크 1984:183-184)는 [awŋ]으로 재구하였는데, 현대중국방언음이나 외국차용 한자음에서 東운1등과 冬운이 구별되지 않아 절운시대에 이 두 운이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일한 단서로 冬운이 鍾운과 동용(同用)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¹⁴⁾ 그러나

seen, were all the time inclined to simplify and lump together (cf. *kīn*, *kim* etc.) lumped this -*ung* (tending towards -*ōng*) together with the -*uong* of Final 116 and rendered them both by -*ong*.”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만일 그의 주장대로 冬운을 [uoŋ]으로 본다면, 강한 합구개음 [u]는 핵모음을 흡수 또는 탈락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를 들어 한국한자음에서는 [oŋ]이 아니라 [uŋ]을 반영하였을 것이고, 만요우슈우(萬葉集) 등 고대문헌에서도 宗의 경우 스로 반영되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후술한 바와 같이 ㄱ잡류로 반영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점은 후술한 똥통후아(董同龢)도 마찬가지이다.

12) 然而在《切韻》這兩系何以只是亂雜而不同韻呢？我猜想在某種方言，這兩系的主元音不能全然相同。…這好像是說冬鍾在某種方言是開口韻，在別種方言是合口韻。…所以冬鍾的方言開口音得有另一個主元音，那好像是uŋ, iuŋ。(陸志韋 1985:55)

13) 鍾韻字在音韻演變方面有許多與虞韻字平行的現象，而虞韻是合口音，所以我們也把冬鍾都認為合口。

14) The other Grade I final of the *tong* rhyme group, 冬, came from the Old Chinese *-əwŋ category. There is little direct evidence as to how it differed from 東 -owŋ around the time of the *Qieyun*. The two finals are not distinguished in any modern dialect or in any of the

그의 재구음에 의하면 한국한자음이나 만요우가나 그리고 티베트와 베트남한자음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구음이다.

王力(왕리 1985:221-222)는 東部는 선진(先秦)부터 수당(隋唐)때까지 개구음이며 그 근거는 윈징(韻鏡)에서 東운은 내전제1개(內轉第一開)에 속한다는 사실을 들어 東운의 핵모음이 [u]일 수 없으므로, 즉 [o]이므로 冬鍾운은 [u]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¹⁵⁾ 이 주장에 따르면 冬운과 東1등운이 만요우가나나 베트남과 티베트한자음에서 동일하게 핵모음이 [o]로 반영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藤堂明保(1980:256-260)는 한음에서 東3·4등과 鍾3·4등에 일부 보이는 구별과 운경에서 ‘第2圖-冬1等, 鍾3·4等 : 第12圖-模1等, 虞3·4等’와 같이 운의 배치가 일치하다는 점을 근거로 冬운을 [oŋ]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재구는 어디까지나 절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육조시대(六朝時代)의 어떤 방언에서 [oŋ]과 같은 구별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절운에서 東운1등과 冬운을 분리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와 같은 구별이 오음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¹⁶⁾ 따라서 그는 중고음, 즉 절운이나 절운 이후 당말(唐末)까지 東운1등과 冬운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중고음은 [oŋ] 보다는 [uŋ]과 같은 음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河野六郎(코우노 로쿠로우 1979:71-74, 120-122)는 Karlgren의 재구음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冬운을 Karlgren의 [uoŋ] 보다는 [oŋ]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는 王力の 『南北朝詩人用韻考』에서 冬운은 鍾운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점과 王仁昫(왕르언쉬)의 『切韻』에서 冬운과 東운이 명백히 구분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¹⁷⁾ 필자는 그의 재구음이 후술한 바와 같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systematic foreign borrowings of the Tang period. The most substantial clue is that it formed a separate *tongyong* set in regulated verse with the Type B rhyme 鍾. This comes from the Old Chinese *-awŋ category, and there is good evidence, already used by Karlgren, for assuming that it had a lower vowel than the type B final of rhyme 東 (which I reconstruct as -uwŋ).

15) 東部的音值自先秦到隋唐都是開口韻、屋部亦同。《韻鏡》把東韻及其入聲屋韻定為“內轉第一開”、可為確證。(p.221)

16) …《切韻》が「東：冬」を分かったのも、おそらく上古音系における細かい区分の痕跡が、六朝時代のどこかの方言に残っていたためにちかいない。(p.258)

17) 王力氏の研究(「南北朝詩人用韻考」p.812)に據ると、「第二期……東鍾的界限、就很顯明；冬江字少、不常見、偶見時、則歸鍾、不歸東」。王仁昫切韻には、「冬無上聲、陽(休之)與鍾江同、呂(靜)夏侯(該)別、今依呂夏侯」又「宋陽、與用絳同、夏侯別、今依夏侯」とあつて、東韻とは明瞭に區別してゐる。鍾江と近い關係にある處から見れば、冬韻の音價は-oŋではなかつたかと思はれる。(pp.73-74)

4. 冬운의 변천

본 장에서는 冬운의 선진(先秦)시대부터 만당(晩唐)시대까지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진시대 즉 시경(黃典誠 1992)을 보면

篤公劉 于京斯依 踳踳濟濟 俾筵俾几 既登乃依 乃造其曹 執豕于牢 酌之用匏
食之飲之 君之宗之(公劉 p.387)

旱既大甚 蘊隆蟲蟲 不殄禋祀 自郊徂宮 上下奠瘞 靡神不宗 后稷不克 上帝不臨
耗下土 寧丁我躬(雲漢 pp.417-418)

와 같이 宗이 飲과 압운관계에 있고, 蟲宮躬(이상 東운 3·4등단운)宗이 甚臨과 압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진시대에는 冬운은 東운과 함께 侵部에 속하였다.¹⁸⁾ 王力(1985)에 의하면 전국시대에 이르러 侵部가 侵部(개구)와 冬部(합구)로 나뉘었고,¹⁹⁾ 漢代에는 冬部는 선진시대와 여전히 같은데 극히 일부가 東部와 압운되었으며, 본래 蒸部3등이었던 弓穹雄 등이 冬部로 편입되었다.²⁰⁾ 위진남북조시대에는

相应地, 东冬两部也有一个大变动: 东部三等和冬部三等对调, 东部三等变为冬部三等, 冬部三等变为东部三等。(p.154)

와 같이 東部3·4등단운이 冬部3·4등단운으로, 冬部3·4등단운은 東部3·4등단운으로 각각 서로 이동하여 중고음과 같아지게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남북조시대²¹⁾ 제1기(王儉452~489년 謝朓464~499년)에는 東冬鍾江운이 압운되었는데 이 점은 제1기의 흔적이며, 제1기와 제2기의 과도기에 있는 江淹(444~505년)은 東운과 鍾운이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혼용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2기에는 王儉·謝朓·江淹을 제외하면 東운과 鍾운이 확연히 분리되었으며, 冬운과 江운은 비록 예가 적지만 모두 東운이 아니라 鍾운과 압운되었다.²²⁾ 따라서 제2기부터

18) 東部에는 중고음의 東운1등과 鍾운3·4등단운이 속하였고, 侵部에는 冬운과 東운3·4등단운이 속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冬운1등은 東운1등과 서로 다른 部에 속하였다.

19) 到了战国时代, 侵部分化为侵冬两部, 开口呼属侵, 合口呼(韵头 u, iu)属冬。(p.67)

20) 冬部与先秦冬部一致。汉代冬部, 极少和东部押韵。...“弓穹雄”等字, 本属蒸部三等, 汉代转入冬部。(p.101) 중고음을 기준으로 보면 冬部1등은 冬운이며 2등은 江운, 3·4등은 東운3·4등이다.

21) 王力는 남북조 시인들의 생몰연대를 기준으로 남북조시대를 3기로 나누었다. 이것을 사망 연도를 기준으로 <제1기:370년~497년>, <제2기:498년~550년>, <제3기:551년~618년>으로 대략 나눌 수 있다.

22) 王力(2000:29)在南北朝第一期, 东冬鍾江是同用的, 王儉、謝朓还有第一期的遗风。江淹可以代表第一期与第二期之间的过渡人物, 所以他的东韵与鍾韵虽在大部分的情形之下是分开, 却仍有些混用的地方。第二期除江王謝三人以外, 东鍾的界限就很明显; 冬江字少, 不常见, 偶见时, 则归鍾而不

는 즉 약 A.D.500년부터는 東운1등과 東운3·4등이 합운되었고, 冬운1등과 鍾운 3·4등이 합운되어 중고음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약 A.D.500년을 기준으로 東운 3·4등과 鍾운 3·4등의 변화를 보여주므로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나라부터 중당(中唐581~836년)까지는 여전히 東운1등과 冬운1등은 분운된 상태인데, 당 초기에 압운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東운1등과 冬운1등은 분운이 분명히 지켜졌다.²³⁾ 만당에서 오대(晚唐~五代:836~960년)까지의 이 시기에는 東冬鍾운의 합운이 비로소 이루어져, 東운1등과 冬운1등이 같아지게 되는데 『切韻指南』에는 합구호(合口呼)로 처리되었다.²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東운과 冬운은 물론 鍾운도 같은 음으로 변화 없이 합운인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지만 万葉假名를 보면 東운1등과 冬운의 예는 /才갑류/로 반영되었는데, 그 시기에 다시 말하면 남북조시대에서 중당(中唐)시기까지는 東운과 冬운이 분운되었으므로 중국인의 귀로는 서로 다른 음으로 들렸음이 분명한데, 그 서로 다른 음을 일본인은 /才갑류/와 /ウ/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음으로 반영했다고 하는 사실은 東운과 冬운의 핵모음이 서로 상당히 근접한 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음이지만 [u]와 [o]와 같이 근접하지 않은 음이 아니라, 서로 어떤 음질을 공유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상당히 유사한 즉 근접한 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万葉假名 ‘農’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5. 萬葉假名 ‘農’

万葉集에 음차자 農은 다음과 같이 총 11회가 보이는데,

3-361	佐農能岡	5-794	斯良農比	5-802	麻斯提斯農波
	由				
5-802	夜周伊斯奈佐農	5-882	阿我農斯能	5-888	都祢斯良農

归东。第二期以后的东鍾合用时，仅能认为例外，因这种情形太少了。

23) 东独用，冬鍾同用，江独用。这就构成东冬江三个韵部。唐诗用韵是和这些韵部相一致的。这并不是迫于功令，初唐诗韵，功令未严，而东冬分用画然。(p.215)

24) 东冬鍾合部，屋沃烛合部，在朱翱反切中也有许多证据。李涪《刊误》说：“法言平声以东农非韵，以东崇为切；上声以董勇非韵，以董动为切；去声以送种非韵，以送众为切；入声以屋烛非韵，以屋宿为切。何须东冬中终，妄别声律！”李涪是晚唐人，可见晚唐时代已经东冬鍾不分，屋沃烛不分。(p.256) 东冬鍾合部后，其音值应该是[un]、[iun]。《切韵指南》以通摄为合口呼，说明了这个情况。(p.257)

5-889	斯奈婆斯農等母	5-891	二遍美延農	5-892	志可登阿良農
5-896	美船泊農等	5-897	心波母延農		

부정의 조동사 又의 표기에 ‘奈佐農·斯良農·美延農·阿良農’와 같이 4회, 완료의 조동사 又의 표기에 ‘泊農·母延農’와 같이 2회, 동사 ‘斯農波由·斯農’ 2회, 그리고 명사 ‘農斯’와 枕詞 ‘斯良農比’에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모두 山上憶良의 노래에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이외의 한 예는 山部宿祢赤人の 노래로 지명 ‘サヌノオカ(佐農能岡)’의 又표기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제3기의 작가이므로 /갑류보다는 又의 표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²⁵⁾

万葉集 이외에는 日本書紀 가요²⁶⁾에 다음과 같이 10예가 보인다.²⁷⁾

β군가요:5-15²⁸⁾於朋望能農之能/5-18農殊末句志羅珥/7-27岐農岐勢摩之塢
 α군가요:14-81農播柁磨能/15-84於尸農瀾能/16-89農哿儒登慕/16-90哿哿農俱彌柯
 枳/25-114磨陞左枳涅渠農/27-125陞麻爾農矩騰岐 於野兒弘備農俱

즉 당대북방음을 반영하는 α군에 7예가 보이고, β군에는 3예가 나타나는데 모두 又의 표기로만 사용되었다. 日本書紀에서 又의 표기로 쓰인 農 이외에는 奴(α군 1예;β군 2예)·怒(α군 없음;β군 3예)

β군가요:10-36 奴那波區利/13-71 臂等資利奴陪瀾; 2-4 阿黨播怒介茂譽/3-12 和例破椰隈怒/11-56 枳許瑳怒

25)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26) 日本書紀 가요 이외에 ‘白膠木此云農利渥(권21 用明紀)’와 ‘淳中此云農難(권28 天武紀)’가 α군과 β군에 각각 1예 보인다.

27) 出雲風土記에는 다음과 같이 14예가 나타나는데 모두 又의 표기로 사용되었다.

①亦北門農波乃國矣(意宇郡) ②伊農鄉本字伊努(秋鹿郡) ③伊農鄉郡家正西一十四里二百步. 出雲郡伊農鄉坐赤衾伊農意保須美比古佐和氣能命之后, 天 厩津日女命國巡行坐時, 至坐此處而詔伊農波夜詔. 故云伊努神龜三年改字伊農.; 伊農川源出郡家正西一十六里伊農山南流入々海.;通楯縫郡界伊農橋一十五里一百步.(秋鹿郡) ④通秋鹿郡界伊農川八里二百六十四步.(楯縫郡) ⑤伊努鄉本字伊農; 故云伊農神龜三年改字伊努; 伊農社(出雲郡)

③의 ‘伊努神龜三年改字伊農’에 의하면 努가 農으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農이 又표기로 적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⑤의 ‘伊農神龜三年改字伊努’에 의하면 여전히 模운인 努가 /갑류로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又와 병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8) 5-15는 권5 15번 가요를 나타낸다. 이하 같다.

α군가요:15-85 奴底喻羅俱慕與

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α군에는 ㄹ의 표기로 奴의 ‘奴底(鐸)’ 이외에는 農만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模운에 속한 奴怒는 模운의 음의 변화에 의해 ㄴ갑류(또는 ㄷ갑류)만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農은 ㄴ갑류보다 ㄹ에 가까운 음이거나 ㄹ의 음과 같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冬운에 속한 宗은

又娶宗我稻目足尼大臣女子，支多斯比賣命生兒伊波禮池辺宮治天下，橋豐日天皇聖王父也…少治田天皇之世，東宮廐戶豐聰耳命大臣宗我馬子宿祢共乎章而建立三宝始興大寺故曰法興元世也。(上宮聖德法王帝說)

武內宿祢命子，宗我石川宿祢命十世孫，從三位行左大辨石川石足朝臣長子，御史大夫正三位兼行神祇伯年足朝臣(石川朝臣年足墓志 天平宝字6년<762년>)

次息長日子王. 三柱. 此王者，吉備品遲君，針間阿宗君之祖. (古事記中卷)

又娶春日之日爪臣之女，糠子郎女，生御子，春日山田郎女. 次麻呂古王. 次宗賀之倉王.; 又娶宗賀之稻目宿禰大臣之女，岐多斯比賣，生御子，橋之豐日命. (古事記下卷)

12-3087 眞菅吉 宗我乃河原爾 鳴千鳥 間無吾背子 吾戀者

20-4324 等倍多保美 志留波乃伊宗等 爾閑乃宇良等 安比弓之阿良婆 己等母加由波牟

20-4401 可良己呂武 須宗爾等里都伎 奈苦古良乎 意伎弓曾伎怒也 意母奈之爾志弓

와 같이 인명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伊宗(磯)’나 ‘須宗(裾)’와 같이 ㄴ갑류의 표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日本書紀에는

伊吉博得言，學問僧惠妙，於唐死. 知聰，於海死. 智國，於海死. 智宗，以庚寅年，付新羅船歸.(卷25 孝德紀)

丁酉，大唐L 1 5 學問僧智宗·義德·淨願，軍丁筑紫國上陽咩郡大伴部博麻，從新羅送使大奈末金高訓等，還至筑紫. …癸丑，大唐學問僧智宗等，至于京師.(卷30 持統紀)

와 같이 신라의 학문승의 동일 이름에 그 예가 보일 뿐 가요와 훈주에 음차자 표기로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비록 양성운미음을 지니고 있기는 하더라도 宗은 그 획수가 적고 의미도 좋기(好字) 때문에 음차자 표기로는 아주 사용하기 좋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日本書

紀에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農과 비교해 볼 때 이미 冬운음의 변화에 따라 ㄱ갇류의 표기자로 적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또한 日本書紀에서 東1등운은 ㄷ갇류든 ㄱ이든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農은 山上憶良와 같이 특정한 작가만이 사용했다는 점, 日本書紀에서는 ㄱ갇류가 아니라 ㄴ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ㄴ와 같은 용법은 당대북방음을 잘 반영한 『一切經音義』에서 東운과 冬운이 합류되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 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으로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당대북방음의 東운과 冬운의 합류 시기를 보다 더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의 冬운의 재구음이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6. 冬운과 東운의 합류 시기와 冬운의 재구음

본 장에서는 당대북방음의 東운과 冬운의 합류 시기와 冬운의 중고음과 당대북방음을 추정하면서 나가는 말을 대신하기로 한다.

王力(1985:256)는

东冬鍾合部，屋沃烛合部，在朱翱反切中也有许多证据。李涪《刊误》说：“法言平声以东农非韵，以东崇为切；上声以董勇非韵，以董动为切；去声以送种非韵，以送众为切；入声以屋烛非韵，以屋宿为切。何须东冬中终，妄别声律！”李涪是晚唐人，可见晚唐时代已经东冬鍾不分，屋沃烛不分。

와 같이 李涪의 『刊误』에서 東冬中終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만당(836~907년)시대에는 東운과 冬운이 합운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5장에서 언급하였듯이 日本書紀 a군가요에 農이 7예나 사용된 이유에 대하여 森博達(1991:91)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ŋ韻尾をも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冬] 韻字「農」を7例用いたのは、[冬] 韻の母音が「ヌ」の母音に近い音色をもっていたからにちがいない。平山氏の推定によれば、『切韻』音系では [冬] 韻が [-oŋ]、[東] 韻一等が [-ōuŋ] である。これによれば、[冬] 韻よりむしろ [東] 韻の方がウ列母音に近いように思われる。しかし『慧琳音義』では、[東]・[冬] 兩韻が合流している。a群の字音体系でも、すでに [東]・[冬] 兩韻の合流が生じていたのではなからうか。そうでなければ、母音の近似によって [東] 韻を用いたはずである。(p.91)

즉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東운과 冬운이 합운되었으며, 합운시 冬운이 東운으로 합운되었음을 平山久雄의 재구음을 통하여 지적한 것이다. 당대북방음을 잘 반영한 『一切經音義』는 편찬시기가 783~810년이므로 日本書紀(720년)보다 약 60년 이상 뒤에 나온 것인데, 日本書紀는 당대북방음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東운과 冬운 또한 합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합운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東운1등 설음차탁(또는 청탁)자 대신에 冬운 설음차탁자가 사용된 이유는 廣韻을 보면, 東운1등에는 𪛗(상성)𪛘(거성)과 같이 3자가 존재하지만, 획수도 많고 상용한자로도 사용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東운이나 冬운 이외에 ㄹ로 사용되는 다른 운은 없는가? 고대자료를 보면 模운자인 奴怒努가 ㄹ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러한 模운자 대신에 農을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는 模운 또한 당대북방음에 이르러 기준에 ㄹ와 ㄴ갑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음에서 ㄴ갑류를 나타내는 음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ㄹ표기자로는 冬운 차탁자만이 남게 되며 여기에는 평성과 입성자만 해당자가 있는데, 평성에는 農農𪛗𪛘𪛙𪛚𪛛𪛜𪛝과 같이 12자, 입성에는 𪛞𪛟𪛠𪛡과 같이 4자가 있지만, 역시 의미로 보나 획수로 보나 가장 적합한 자로 農이 선택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東운과 冬운이 일본 자료에 의하면 日本書紀에는 즉 720년경에는 합운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農을 ㄹ표기로 집중적으로 사용한 山上憶良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필자의 논문(2006)에서

기록에 따르면, 憶良는 大寶 원년(701년) 정월에 제7차 遣唐使의 少錄에 임명되어 이듬해 6월에 唐으로 출발, 10월경에 長安(창안)에 도착, 大寶 4년(704년) 7월에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慶雲 4년(707년)에 귀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憶良는 적어도 약 2년 내지 최대 5년 동안을 당나라에 머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하간 憶良가 당시의 수도인 長安에서 적어도 2년간 머물렀다는 사실은 당시의 수도이며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北方音(700년경에는 중국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가요 표기법에서 음차의 경우, 당시의 현실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와 같이 밝힌 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단지 그의 초기 작품으로 40대 전반 즉 700~704년 사이로 추정되는 작품 2수(권1의 63번²⁹⁾과 권2의 145번) 이외에는 모두 그의 말년이라 할 수 있는 728~733년에 집중되어 있고, 農의 사용 또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29) 이 노래에 ㄹ의 표기로 奴가 사용되었는데 서사자와 작자가 일치한다면 당 체제 시기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던 표기 체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그의 권5의 노래는 728~733년 사이의 노래로 題詞 등과 같은 경우는 한문 표기 즉 중국어 문장 표기인 반면에, 노래 즉 일본어 문장 표기는 음차자 위주의 표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또한 당대북방음을 사용한 흔적들이 여러 표기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山上憶良는 귀국 후에는 중국어문장과 일본어문장의 표기 체계를 의식했음을 엿볼 수 있다.

農의 ㄹ표기 사용은 山上憶良가 日本書紀에서의 표기를 의식하였던 안 하였던 간에 건당사과전 시절의, 즉 자신의 당 체제 시기의 당대북방음을 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일본 자료에 의하면 東운과 冬운의 합운은 7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운의 합운은 당나라에서는 더 일찍 합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 시기는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儲泰松(츠우타이쑹 2005)의 연구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唐五代关中音研究》에서 세 가지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당~오대시기의 관중(關中)지역 방언음을 연구하였다. 그 첫 번째 자료는 《全唐詩》《全唐詩補編》《全唐五代詞》와 같이 시문(詩文)의 압운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음의반절(音義反切) 자료로서 초당과 성당 시기에 관중지역에서 만들어진 세 종류의 음의서 慧苑《華嚴經音義》·窺基《妙法蓮華經音義》·云公《涅槃經音義》이며, 세 번째는 불전(佛典)의 중국어 번역에 따른 한역음(漢譯音) 자료로서 다섯 종류 즉 《攝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入蓮華胎藏海會悲生曼荼羅廣大念誦儀軌供養方便會》《金剛頂經毘盧遮那百八尊法身契印》《蘇悉地羯羅供養法》《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佛頂尊勝陀羅尼經》一卷을 통하여 연구한 것이다.

음의반절자료에 의하면 冬운과 東운이 먼저 혼용되었고 이어서 鍾운과도 혼용이 일어났음을 지적하였다.³⁰⁾ 시운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고 설명하였다.

东钟部独用同用表

	古体诗	近体诗	词	文	律賦	总计
东	66	161	8	68	30	333
钟	8	35		13	6	62
冬钟	1			1	1	3
东钟	18	22	4	17	1	62
东冬	7	3		5		15
东冬钟	3		1	3		7
总计	103	221	13	107	38	482

冬韵没有独用例, 冬钟同用亦仅3次, 与此相反, 东钟、东冬、东冬钟同用却有84次之多, 据此可定东冬钟为一部。(p.123)

즉 東운이나 鍾운이 독용(獨用)으로 쓰인 예가 82%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冬운이 독용으로 쓰인 예가 전혀 없고 대신에 東冬운 또는 東冬鍾운이 압운된 예가 22예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 東冬鍾운이 합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역음의 경우 다음 자료(p.182)와 같이

30) 以上混用, 与诗文押韵合用现象相符: 东冬先混, 再与钟合用, 因为云公时代最晚。(p.63)

东韵系

va(或作 va_ms) 梦 k_sobh/k_subh 闕 muk 穆 mukh/
muk/mug/mok/mogh 目 śuk 缩 hoh 斛穀

冬韵系

hoh/hah/hāh 鹄

钟韵系

gum_g 颯 va(或作 va_ms) 网无奉反 śuk 東 yuh/yus 欲

東운1등은 핵모음이 [o]로 3·4등은 [u]로 나타나고, 冬운은 [o], 鍾운은 [u]로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本摄对u, o, 唇音字对a, 主元音当是[o]…(p.182)”와 같이 通摄의 핵모음을 [o]로 추정하였다. 즉 東冬鍾운 모두 개음을 제외하면 [oŋ]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冬운과 東운1등의 합류 시기에 대하여 앞의 “东钟部独用同用表”에 대한 설명에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三韵相混的时间亦较早, 高宗李治《隆国寺碑铭》(73b)即有东冬同用例。

즉 이 세 운의 혼용시기는 비교적 빠르며 高宗인 李治(628-683년)의 비명에 바로 冬운과 東운1등의 동용예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冬운과 東운1등의 합운 시기는 高宗의 생몰연대가 628~683년이므로 최소한 683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冬운의 중고음을 [oŋ]으로 추정한다. 그 근거는 첫째, 한국전승한자음은 모두 /오/으로 반영되었는데, /오/는 [o]와 [u] 사이의 모든 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oŋ]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요우가나에 의하면 冬운의 宗은 중고음 이전부터 ㄱ갑류로 즉 모음은 [o]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의한다. 農의 경우는 ㄱ로 쓰인 출현 시기가 山上憶良의 노래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과 ‘佐農能岡’의 표기자는 만요우 제3기 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점, 그리고 日本書紀에서 ㄱ의 표기자로 a군에서 農이 대두하여 주로 쓰였다는 점에서 ㄱ로 변하기 이전인 중고음에서는 [oŋ]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³¹⁾ 둘째, 제2차 자료일지라도 베트남한자음과 티베트한자음 모두 [oŋ]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해, 그리고 현대중국방언음에서 주로 [uŋ]과 [oŋ]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의하여 冬운을 [oŋ]으로 추정할 수 있다.

冬운의 당대북방음은 [oŋ]으로 추정한다. 冬운은 東운1등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만일

31) 그런데 冬운이 [oŋ]이었다면 東운1등음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김대성(2000)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중고음의 東운1등이 [oŋ] 또는 [uŋ]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전자의 경우 冬운이 [oŋ]이므로 이미 중고음에서 합운이 이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중고음 자료의 설명이 불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東운1등이 [uŋ]이었다면 그 운에 속한 蒙木이나 嗽가 ㅁ갑류나 ㅅ갑류로 사용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東운1등을 [ɔŋ]으로 재구해야 하며 이 음에 의해 당대 북방음에서 683년 이전에 冬운 [oŋ]이 [ɔŋ]으로 변하였고 山上憶良가 農을 ㄹ의 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즉 農은 성모가 설두 전탁음이므로 비음이다. 성모가 비음 이면서 운미음도 비음([ŋ])이므로 비음 사이에 끼인 핵모음 [ɔ]가 비음의 영향으로 [u]로 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음+모음+비음’에 의해 [noŋ]이 ㄹ로 반영된 것이다. 다만 東운 1등이 당대북방음에서 [uŋ]이나 [uŋ]로까지 변하였고 이와 같은 음으로 冬운도 변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冬운과 東운1등음의 변화

	위진남북조 제2기 (약 A.D.500년)	중고음(절운)	683년 이전
冬	[oŋ]	[oŋ]	[ɔŋ]
東	[ɔŋ]	[ɔŋ]	[ɔŋ]

【参考文献】

- 김대성(2003) 『고대 일본어의 음운에 대하여』, 제이앤씨. pp.106-107.
- 김대성(2006) 「山上憶良의 ㄴ甲類와 ㄹ의 이중형 문제와 舌音 音借字」, 일본어문학 30. 한국일본어문학회.
- 김대성(2010) 「万葉集의 음차자 農 (Ⅰ) -馬淵和夫설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54.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김대성(2012) 「止攝 諸韻의 中古音 再構 -한일중 및 베트남·티베트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2. 한국일본문화학회
- 김용욱(1992)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pp.349-361.
- 임동석 역(1993) 『한어음운학강의』, 동문선. p.163
- 植垣節也(1997), 『風土記(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木崎愛吉(1972), 『大日本金石史(一)』, 歴史図書社.
- 木崎愛吉(1972), 『大日本金石史(四)』, 歴史図書社.

- ・キム・デソン(2000)「中古漢字音の再構成 -韓日資料による韻母音を中心に-」, 福岡大学博士学位論文.
- ・河野六郎(1993)『河野六郎著作集 第2巻』, 平凡社. pp.171-74・120-122
- ・小島憲之外(1994-1996), 『万葉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小島憲之外(1994-1998), 『日本書紀(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上代文献を読む会(1989), 『古京遺文注釈』, 桜楓社.
- ・藤堂明保(1980)『中国語音韻論』, 光生館. pp.256-260
- ・荻原麻男外(1976), 『古事記・上代歌謡(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三根谷徹(1993)『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 汲古書院. pp.405-406
- ・森博達(1991)『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修館書店. p.91
- ・山口佳紀外(1998), 『古事記(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Bernhard Karlgren(1963)『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pp.259-261.
- ・E.G.Pulleyblank(1984).『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83-184.
- ・北京大学中国语言文学系语言学教研室編(1989)『汉语方音字汇』, 文字改革出版社.
- ・儲泰松(2005)『唐五代关中方音研究』, 安徽大学出版社.
- ・林焘・王理嘉(1992)『语音学教程』, 北京大学出版社. p.47
- ・陸志韋(1985)『陸志韋語言學著作集(一)』, 中華書局. pp.54-55.
- ・羅常培(1933)『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p.57
- ・黃典誠(1992)《詩經通譯新銓》,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王力(1985)『汉语语音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要 旨

I have two broader aims. The first is to explore when *Dong*(冬) rime was combined with *Dong*(東) one in Division I during *Tang* era. My second aim is to attempt to reconstruct the sound value of *Dong*(冬) rime in Ancient Chinese and the one in Northern Regions in *Tang* era. We find that *Dong*(冬) rime was assimilated into *Dong*(東) rime before A.D.683 when Gao Zong, an emperor of *Tang* dynasty, died, because of his being the first user of the two rimes rhymed in an inscription.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Dong*(冬) was [oŋ] in Ancient Chinese, and [ʊŋ] in the Northern regional sound of *Tang* dynasty. The [oŋ] has been reconstructed by Sino-Korean /옹/, *Manyōgana* or Old Japanese phonetic alphabet 宗(/so/) except for 農(/nu/) representing the latter sound, and Sino-Vietnamese and Sino-Tibetan [oŋ] which are the secondary sources. The Northern [ʊŋ] is mainly based on 農(/nu/) of which *Yamanoueno Okura* made use. We find 11 examples in *Manyōshū* in which *Yamanoueno Okura* wrote ten times and *Yamabeno Akahito*, who used 農 at the same time as *Okura*, had only one example. *Okura* stayed in *Tang* at least for two years in the early 8th century when Ancient Chinese was undergoing its great shift in sounds. It implies that he might have known very well the sound changes in the period. The [ʊŋ] theory is also grounded in the 農 instances of *Nihonsyoki* and *Fudoki*. 農 is mainly represented as /nu/ in a group poems in the former, although a few characters of *Mo*(模) rime are illustrated for /nu/, and it is also recorded only for /nu/ in the latter with 努 having two different sounds /nu/ and /no/.

キーワード : 冬운(*Dong Rime*) 東운(*Dong Rime*)
 중고음(Ancient Chinese) 재구(Reconstruction)
 당대북방음(Northern Regional Sounds in *Tang* Era)
 한국전승한자음(Sino-Korean)
 萬葉假名(*Manyōgana* or Japanese Phonetic Alphabet)
 베트남한자음(Sino-Vietnamese) 티베트한자음(Sino-Tibetan)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